VEKE. 어딘가 들어본 듯한 북유럽 단어 같았는데. ‘밭의 경계에 아무렇게나 두텁게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의미하는 순 제주말입니다.

쟁기로 밭을 일구던 시절부터 땅을 파면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돌덩어리들을 경계 삼아 쌓게 된 베케에는 반듯하게 정돈된 경계석들과는 달리 성근 돌 틈 사이사이 마다 크고 작은 식물들이 자라서 제주다운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자연주의 정원 전문가 김봉찬 대표는 제주 토박이로서 귤밭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베케를 활용해 제주다운 풍광을 담은 베케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생태계를 살리고 존중한 정원으로써 '가드너 들의 가든'이라 불릴 정도로 식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무척 유명하지요.

작은 꽃밭 같은 풀들이 맞아주는 입구를 지나 시멘트로 세워진 크고 좁고 어두운 길로 들어섭니다. 여기가 맞나…? 의아해하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극장처럼 어두운 실내의 스크린 같은 창에서 녹음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주문한 음료에 벅차오른 감정을 얹어 차분히 앉아 제주 곶자왈이 축소된 것 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자니 숲속으로 순간이동한 것만 같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양 자연스러운 풍경들, 잔잔한 음악과 차분해진 티타임이 끝났다면 바깥을 거닐어 봅시다. 투박하되 고결하고, 거칠지만 따스한 우리네 정서를 담은 정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 자연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정해진 동선은 따로 없으니 자유롭게 마음 가는 정원들로 이동해 볼까요? 모든 정원의 시퀀스를 만끽하고 나서면 섬세한 지휘자의 클래식 한편 혹은 여운 짙은 시 한 편을 음미한 느낌이 듭니다. 베케에서 즐거이 남긴 사진들의 자연스러운 표정에서 행복함이 좀 더 느껴지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베케

가드너들의 가든, 베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1137-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54

매일 10:00 ~ 18:00

매주 화요일 정기휴무

064-732-3828

아래 지도를 클릭하면 구글맵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